

이러닝에서의 재이용의향 결정요인 -태도와 몰입의 통합적 접근-

The Determinants of Reuse Intention in e-Learn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Attitude and Flow-

이종만, 강환수, 박종학
동양미래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Jong Man Lee(jmlee@dongyang.ac.kr), Hwan Soo Kang(hskang@dongyang.ac.kr),
Jong Hak Park(jhpark@dongya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에서의 재이용의향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태도와 몰입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콘텐츠 충족성, 코스 피드백, 학습자 자기주도성, 태도, 몰입, 그리고 재이용의향으로 구성된 이론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러닝 사이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총 409개의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콘텐츠의 충족성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학습자의 태도 및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이 이러닝 시스템의 재이용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러닝 재이용의향의 결정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이러닝 | 태도 | 몰입 | 콘텐츠 충족성 | 자기주도학습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learner intention to reuse in e-learning. Based on attitude and flow related studies, our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consisting of factors such as contents sufficiency, course feedback,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flow, and reuse intention. The survey method was used for this paper, and data from a total of 409 users in e-learning system were used for this analysis. To analyze the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tents su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flow as well as attitude, and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flow as well as attitude. Second, both attitude and flow have a positive effect on reuse intention. Th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determinant indicators of reuse intention in e-learning.

■ keyword : | e-Learning | Attitude | Flow | Contents Sufficiency | Self-Directed Learning |

* 이 연구는 동양미래대학 학술연구 '이러닝에서 학습자 태도와 몰입에 대한 선행요인과 결과' 과제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접수번호 : #090728-006

접수일자 : 2009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10일

교신저자 : 이종만, e-mail : jmlee@dongyang.ac.kr

I. 서 론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가상교육(cyber education), 온라인교육(online education), 웹기반 교육(web based education) 등으로도 불리는 전자 학습(electronic learning, e-Learning), 이후 이러닝으로 기술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이러닝은 매우 큰 규모의 인터넷 응용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학교와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도입되고 있다[4]. 특히, 이러닝은 사용의 용이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러닝을 실시하는 조직이나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모두에서 무엇이 학습자로 하여금 이러닝 학습을 지속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러닝 시장의 요구 때문에 학습자의 이러닝 재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발표된 이러닝 선행연구들은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후 TAM 모형으로 기술함)을 배경으로 하는 초기연구들과 물입(flow)을 중심으로 한 최근 연구들로 대별된다. 그러나 기존 이러닝 연구들은 포괄적인 분석보다는 TAM 모형, 물입 이론 등 특정한 이론만을 바탕으로 이러닝 현상을 설명하려 하거나 성과, 물입 등 특정한 변수에만 주안점을 둔 단편적인 분석에 집중하여 왔다. 그래서 기존 연구결과들이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러닝 성공요인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이러닝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첫째, 전체적인 관점에서 TAM 모형과 물입 이론을 통합하고 둘째, 해당 이론의 핵심인 태도와 물입에 대한 공통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실증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TAM 모형

1989년 Davis가 제안한 TAM 모형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 개인의 태도(attitude) 및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5][16]. TAM 모형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용 의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TAM 모형을 바탕으로 한 태도 관련 변수는 이러닝 분야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된 이러닝 분야의 태도 연구들에서 그 선행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태도의 선행요인 연구

연구자		사용용이 성/유용성	학습 동기	콘텐츠	상호작용 (피드백)	자기주 도학습
년도	저자					
2004	전재영				✓	
2006	한진환	✓	✓	✓		
2007	김미량 외 1인	✓		✓	✓	✓

2. 물입 이론

1975년 Csikszentmihalyi가 제안한 물입은 인간이 완전한 참여의식을 지니고 행동할 때 느끼는 전반적 감각으로서, 어떤 숙련도에 상응하는 최적의 도전감으로 정의된다[9][18]. 이 개념의 특징은 통제, 주목, 호기심, 본질적 재미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현재 스포츠, 게임, 쇼핑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물입 이론(flow theory)에 따르면, 인간이 물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짜증이나 지루함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한다 [6]. 이러한 논리를 이러닝 분야에 적용해 보면, 이러닝 만족내지 재이용의향은 학습자가 이러닝을 통하여 여러가지 경험들을 하는 동안 스스로를 물입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는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이러닝 분야의 물입 연구들에서 그 선행요인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2. 몰입의 선행요인 연구

연구자	시스템 요인	콘텐츠 요인	상호작용 (피드백)	자기주도 학습
년도	저자			
2006	엄명웅 외 1인		✓	
2006	고일상 외 2인	✓	✓	
2007	정상록 외 1인		✓	
2008	장정주 외 2인	✓	✓	
2008	최희준		✓	✓
2008	강순정 외 2인	✓	✓	

3. 태도 및 몰입의 공통 선행요인 도출

본 연구는 기존 이러닝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던 이러닝에서의 재이용의향 결정요인인 태도 변수와 몰입 변수를 하나의 이론 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각 변수의 선행변수들을 정리한 결과([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콘텐츠, 상호작용(피드백), 자기주도학습을 두 변수의 공통 선행요인으로 도출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전제적인 관점에서 이러닝 사용자의 태도와 몰입에 대한 선행요인과 그 결과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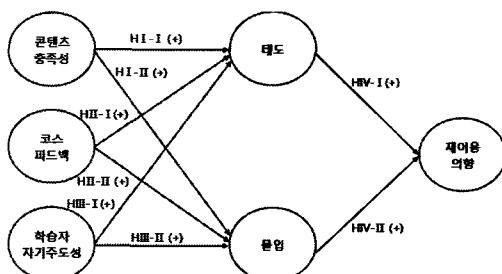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콘텐츠 충족성, 코스 피드백, 학습자 자기주도성은 태도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채택되었으며, 재이용의향은 태도와 몰입의 결과요인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가설

2.1 콘텐츠 충족성과 태도 및 몰입

한진환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콘텐츠의 정보품질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충족성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엄명웅과 김태웅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와 콘텐츠 내용간 상호작용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순정 외 2인의 연구에서는 콘텐츠 내용의 정보 충족성은 학습자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장정주 외 2인의 연구에서도 콘텐츠의 표현성은 학습자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일상 외 2인의 연구에서도 강의설계요인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콘텐츠의 충족성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설 I - I : 콘텐츠의 충족성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태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I - II : 콘텐츠의 충족성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몰입도 높을 것이다.

2.2 코스 피드백과 태도 및 몰입

전재영의 연구에서는 웹기반 영어교육 분야에서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1]. 한편, 정상록과 송기상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기반 피드백은 학습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시켜서 몰입학습을 유도하였다[12]. 장정주 외 2인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성이 학습자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일상 외 2인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요인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코스의 피드백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설 II - I : 코스의 피드백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태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II - II : 코스의 피드백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

의 몰입도 높을 것이다.

2.3 학습자 자기주도성과 태도 및 몰입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자신의 학습능력을 스스로 관찰하여 자신의 학습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대응시키는 학습자의 판단정도를 의미한다[8]. 최화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특성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 그러나 김미량과 김진숙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태도와 자기주도성은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도성과 태도와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태도 및 몰입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I :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태도도 좋을 것이다.

가설 III-II :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몰입 수준도 높을 것이다.

2.4 태도 및 몰입과 재이용의향

한진환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가 이러닝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장정주 외 2인은 학습자의 몰입이 재수강 의향 등으로 구성된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고일상 외 2인도 학습자 몰입은 학습효과의 향상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변수임을 밝혔다 [2][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 및 몰입과 재이용의향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I : 학습자의 태도가 좋을수록 재이용의향도 높을 것이다.

가설 IV-II : 학습자의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재이용의향도 높을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제안된 연구모형의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잠재변수		조작적 정의	설문 항목수	참고문헌
독립 변수	콘텐츠 충족성	이러닝 콘텐츠 구성맥락 및 표현품질의 정도	3	강순정 외 2, 2008; 엄명용 외 1, 2006
	코스 피드백	이러닝 코스에서의 피드백 정도	3	엄명용 외 1, 2006
	학습자 자기 주도성	이러닝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정도	5	김미량 외 1, 2007; 이용규 외 1, 2006
매개 변수	태도	이러닝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호의감 정도	5	김미량 외 1, 2007 최돈민 외 3, 2004
	몰입	이러닝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집중/참여 정도	7	강순정 외 2, 2008; 엄명용 외 1, 2006
종속 변수	재이용 의향	이러닝을 통한 학습자의 재이용의향 정도	3	김성균 외 2, 2007

2.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두 번의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예비조사는 2명의 연구자와 2명의 산업체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본 연구모형의 내용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이 최근 이러닝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첫 번째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7점 리커트 척도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두 번째 예비조사는 이러닝 학습 경험자 32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발된 측정도구의 내적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후,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집중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V. 결과 분석

1. 기술 통계

연구모형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54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일정응답란에 연속적으로 표시하였거나 결측값이 있는 응답 45부를 제외하고 40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대상으로는 이러닝 사이트에서 한 강좌 이상을 이수했던 이러닝 학습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사용경험이 있는 이러닝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최종 표본의 특성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4. 표본의 주요 특성

연령	빈도 (건)	구성비율 (%)	접속회수 (회/1주)	빈도 (건)	구성비율 (%)
10대	169	41.3	1~3회	268	65.5
20대	212	51.8	4~6회	115	28.1
30대	28	6.9	매일	26	6.4
합계	409	100.0	합계		409 100.0
성별	빈도 (건)	구성비율 (%)	이용장소	빈도 (건)	구성비율 (%)
남	276	67.5	집	291	71.1
여	133	32.5	학교	118	28.9
합계	409	100.0	합계	409	100.0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SmartPLS 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 관측변수의 신뢰성 분석, (2) 잠재변수의 내적일관성 분석, (3)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서, 26개의 관측변수가 6개의 잠재변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검증하였다[20]. 측정모형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변수의 신뢰성 분석은 각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즉,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요인적재량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0.686에서 0.934 사이로 각 관측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잠재변수의 내적일관성 분석은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 CR)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즉, 복합신뢰도가 0.7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0.849에서 0.936 사이로 각 잠재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관측변수 신뢰성, 잠재변수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잠재변수	관측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t-통계량	CR	AVE
콘텐츠 충족성 (CS)	CS1	5.56	1.311	0.912	41.830	0.926	0.808
	CS2	5.55	1.303	0.902	36.004		
	CS3	5.34	1.076	0.882	29.009		
코스 피드백 (CF)	CF1	5.55	1.290	0.867	25.229		
	CF2	5.07	1.449	0.862	21.864		
	CF3	5.38	1.403	0.686	7.491		
학습자 자기주도성 (LS)	LS1	5.29	1.413	0.843	22.100	0.903	0.651
	LS2	5.45	1.458	0.780	13.651		
	LS3	4.73	1.619	0.811	16.113		
	LS4	4.73	1.638	0.819	17.430		
	LS5	5.06	1.477	0.782	16.618		
태도 (AT)	AT1	5.44	1.369	0.889	33.155	0.931	0.730
	AT2	5.44	1.362	0.885	36.799		
	AT3	5.70	1.343	0.791	15.988		
	AT4	5.55	1.324	0.871	27.331		
	AT5	5.70	1.261	0.832	21.612		
몰입 (FL)	FL1	5.07	1.488	0.794	17.924	0.933	0.666
	FL2	5.14	1.536	0.840	22.667		
	FL3	5.11	1.461	0.858	23.278		
	FL4	4.75	1.577	0.790	17.964		
	FL5	4.96	1.581	0.835	24.224		
	FL6	4.92	1.627	0.824	17.347		
	FL7	4.88	1.641	0.769	13.987		
재이용의향 (RI)	RI1	5.25	1.510	0.883	29.828	0.936	0.830
	RI2	5.58	1.473	0.934	61.709		
	RI3	5.56	1.525	0.915	40.825		

셋째,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은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을 사용하여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기준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0.5이상이면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은 모두 0.5이상이면서, 해당 횡축과 종축의 다른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들은 모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CS	CF	LS	AT	FL	PI
CS	0.899					
CF	0.482	0.809				
LS	0.344	0.280	0.807			
AT	0.631	0.429	0.505	0.854		
FL	0.563	0.431	0.634	0.707	0.816	
RI	0.540	0.376	0.431	0.638	0.646	0.911

3.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 검증을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SmartPLS 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용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20].

콘텐츠 충족성, 코스 피드백, 학습자 자기주도성이 태도 및 몰입을 매개로 하여 재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분석 수행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선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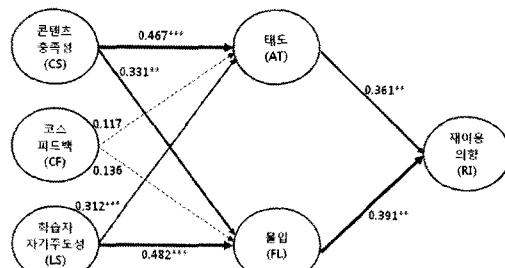


그림 2. 전체그룹의 경로분석 결과

구조방정식에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의 양을 의미하는 R^2 를 이용한 각 잠재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학습자 재이용의향의 경우 0.483, 학습자 태도의 경우 0.502, 학습자 몰입의 경우 0.551로 모두 임계치로 알려진 0.1을 상회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가설 H-I-I 과 H-II-II 콘텐츠 충족성(CS)은 학습자 태도 및 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H-I-I: 경로계수 = 0.467, $t = 4.779$; H-II-II: 경로계수 = 0.331, $t = 2.950$). 또한 가설 H-III-I 과 H-III-II 학습자 자기주

도성(LS)도 태도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H-III-I: 경로계수 = 0.312, $t = 3.523$; H-III-II: 경로계수 = 0.482, $t = 5.484$). 마지막으로 태도(AT)와 몰입(FL)은 재이용의향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HIV-I: 경로계수 = 0.361, $t = 3.048$; HIV-II: 경로계수 = 0.391, $t = 3.237$). 그러나 코스 피드백(CF)이 태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H-II-I: 경로계수 = 0.117, $t = 1.352$; H-II-II: 경로계수 = 0.136, $t = 1.46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H-II-I 및 H-II-II 검증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러닝 시스템에 매일 접속했던 표본 그룹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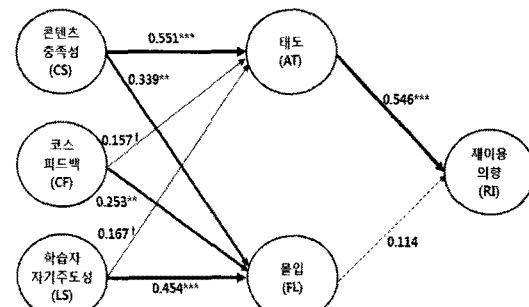


그림 3. 매일 접속그룹의 경로분석 결과

VI.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닝 분야에서 태도와 몰입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립각 구조를 탈피하여, 이러닝에서의 재이용의향 결정요인으로서의 태도와 몰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립한데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이론모형을 이러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제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태도 및 몰입에 대한 콘텐츠 충족성과 학습자 자기주도성의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개별적인 태도나 몰입

관점에서 이러닝 특성인 콘텐츠 요인과 학습자 요인 등을 분석하였는데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을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시켜서 콘텐츠 충족성 및 학습자 자기주도성의 영향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증분석결과, 콘텐츠의 충족성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모두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러닝 수행 조직이나 이러닝 서비스 조직에게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의 충족성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시사점이 있다 하겠다.

둘째, 통합적인 접근으로 이러닝 재이용의향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을 하나의 연구 프레임에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태도 및 몰입이 이러닝 재이용의향의 결정요인이라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이 이러닝의 성공과 직결되는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이러닝 관련 조직은 반드시 학습자의 태도와 몰입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에서 태도와 몰입의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이러닝 관련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시간적, 공간적 갭 등을 줄여줌으로써 학습자의 태도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본 연구 전체 그룹에 대한 실증 결과는 이와 상이했다. 이에 매일 이러닝 시스템에 접속했던 학습자 표본 그룹에 대한 추가 분석 실시 결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그룹에 있어서는 코스 피드백이 학습자의 태도 및 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해당 그룹이 이러닝 학습 중 발생되는 질문 등을 이러닝 시스템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그룹별로 커스터마이즈된 상호작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에 대한 설계 및 통제 조건을 주의깊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에서 태도와 몰입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러나 성별, 지역 등 상황에 따른 조절되는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국내 이러닝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증되었다. 만약 국외 이러닝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수행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순정, 이동철, 김형길, “이러닝 강의시스템 품질이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3호, pp.211-237, 2008.
- [2] 고일상, 최수정, 정경호, “웹 기반 원격교육에서 학습자 몰입의 영향요인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1호, pp.83-108, 2006.
- [3] 김미량, 김진숙,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및 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0호, pp.44-58, 2007.
- [4] 김성균, 성행남, 정대율, “e-러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1호, pp.201-230, 2007.
- [5] 김준우, 문형도, “이질적인 정보기술 사용 환경 하에서의 기술수용모델에 대한 연구”, JITAM, 제14권, 제4호, pp.175-198, 2007.
- [6] 엄명용, 김태웅,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이러닝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5권, 제1호, pp.51-80, 2006.
- [7] 이용규, “보안과 위협의 지각이 인터넷 백킹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학연구, 제17권, 제1호, pp.77-93, 2007.
- [8] 이용규, 이종기, “자기주도학습과 이러닝 학습환경 만족”,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1권,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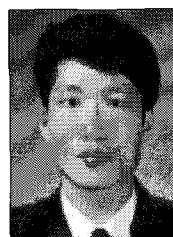
pp.127-143, 2006.

- [9] 장정무, 김종욱, 김태웅, “부천인터넷서비스 구용의 영향요인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제14권, 제3호, pp.93-120, 2004.
- [10] 장정주, 고일상, 정철, “e-러닝 시스템 특성이 학습자 물입과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JITAM, 제15권, 제1호, pp.99-116, 2008.
- [11] 전재영, “웹기반 피드백 유형이 대학생들의 영작문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제10권, 제3호, pp.179-202, 2004.
- [12] 정상목, 송기상, “이러닝 환경에서 물입학습 증진을 위한 대화기반 피드백 시스템의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pp.150-160, 2007.
- [13] 최돈민, 정기수, 변종임, 이현석, “성인학습자의 특성요인이 평생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31-263, 2004.
- [14] 최화춘, “이러닝과 블랜디드러닝의 플로우 경험 구조 및 학습만족 비교”, 관광학연구, 제32권, 제3호, pp.397-413, 2008.
- [15] 한진환, “e-Learning에 대한 태도가 e-Learning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6호, pp.100-108, 2006.
- [16] F. D. Dav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13, No.3, pp.319-340, 1989.
- [17] C. Fornell and D. Lacker, “Evaluating SEM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pp.39-50, 1981.
- [18] M. Csikszentmihalyi,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90.
- [19] M. Csikszentmihalyi,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996.
- [20] <http://www.smartpls.de/forum/release.php>

저자 소개

이 종 만(Jong Ma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KAIST 경영공학 (공학석사)
- 2007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정보시스템(경영학박사)
- 2001년 9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부교수

<관심분야> : 경영정보시스템, IT 아웃소싱, 이러닝

강 환 수(Hwan Soo Kang)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이학사)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이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수료
- 1998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부교수

<관심분야> : 유비쿼터스컴퓨팅, 스마트카드

박 종 학(Jong Hak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이학사)
- 1995년 8월 : KAIST 경영정보 (공학석사)
- 1997년 2월 : KAIST 경영정보 박사수료
- 1997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웹데이터마이닝